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산업정책과 과 장 최명철(044-201-2411), 사무관 심동욱(2425) / 제공일: 7월 22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청년 208명에게 지능형농장(스마트팜)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

- 8월부터 20개월간 기초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교육 제공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**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**을 위한 '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교육과정'에 참여할 **교육생 208명* 최종 선발**

*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별(전북 김제, 전남 고흥, 경북 상주, 경남 밀양) 52명

○ **교육생 208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하여 3.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 반영**

○ 최종 선발된 교육생 평균 연령 30.4세, 비농업 전공자 78.8%이며, 남성 78.4%, 여성 21.6%로 나타남

◈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**기초이론부터 현장실습, 경영실습**까지 **스마트팜 취·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**(최대 1년 8개월)을 교육

○ 지역별 「**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**」에서 **8월부터 20개월간 교육**

◈ **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·복합과 미래농업**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**전문 인력 양성, 청년들의 농업·농촌 분야 유입 확대** 등의 효과 기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, 장관 김현수)는 미래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**'지능형농장**(스마트팜, 이하 '스마트팜')**'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,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**했다.

○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**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**으로 모집한 결과, 208명 모집 정원에 625명이 지원하여 **3.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.**

* 보육센터별 경쟁률 : 전북182명(3.5:1), 경북154(3:1), 경남157(3:1), 전남132(2.5:1)

- 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(6.23.~25.)와 면접평가(7.6.~8.)를 거쳐 208명을 최종 선발하였다.

□ 최종 선발된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**30.4세로 작년 평균 연령인 31.6세보다 1.2세 낮아졌으며**, 남성 신청자의 비중은 78.4%, 여성은 21.6%로 작년과 비슷하다.

○ 교육 희망 품목의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딸기(47.1%), 토마토(23.1), 멜론(8.2) 순으로 나타났다.

○ 특히, 경영학, 기계공학 등 농업 전공 이외의 비중이 78.8%로 농업 외 전공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.

* 농업 외 전공 : 이과 37.5%, 문과 29.8, 기타(고졸, 예체능 등) 11.5%

□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지역별 「**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(이하 '보육센터')**」**에서 최대 1년 8개월 동안** 교육을 받게 된다.

○ 8월에 사전교육(오리엔테이션)을 거친 후, **교육 신청 시 희망한 지역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과정에 참여**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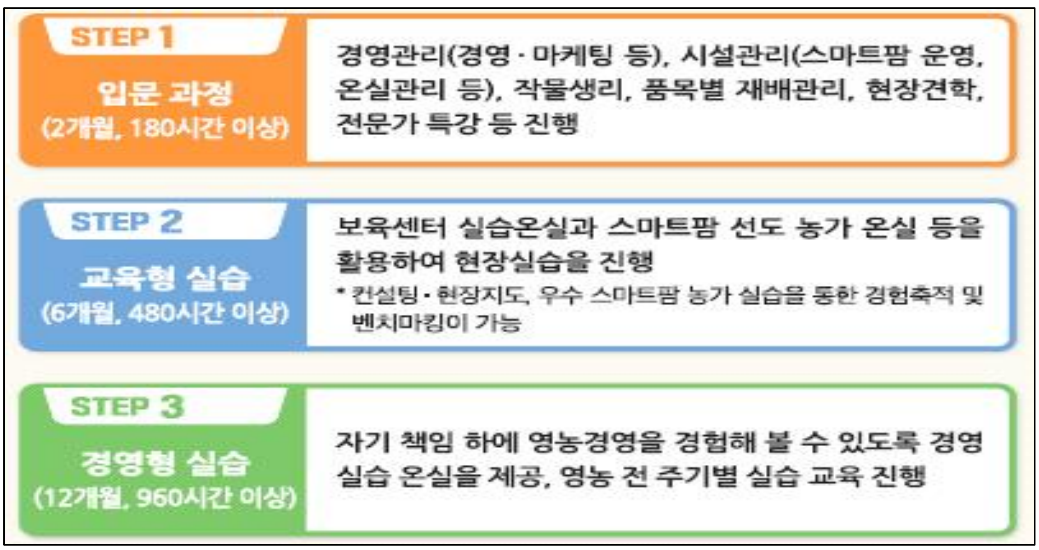
* 보육센터별 교육개시 일정 : 전북(8월말), 전남·경북·경남(9월초)

□ 보육센터 **교육과정은 입문교육(기초이론 2개월), 교육형 실습(농장 현장실습 6개월), 경영형 실습(영농·경영 실습 12개월)으로 구성**되어 있다.

○ **8개월간의 이론교육** 및 보육센터 **실습장에서 현장실습**을 한 후, 경영 실습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**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영농·경영 실습을**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

○ 또한, 현장실습과 경영실습 과정에는 **스마트팜 전문 상담사의 현장 지도와 자문**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다.

- 교육은 스마트팜 시설관리, 경영관리, 작물생리, 품목별 재배방법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스마트팜 전반에 대해 전문강사진으로부터 기초 교육을 받은 후,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.



□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‘의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

○ **1기(‘18년 선발) 45명은 2020년 6월에 수료**하여 38명이 창업을 하였으며,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장에 취업하였고, 2기(‘19년 선발) 81명은 7월 말에 수료할 예정이며 3기(‘20년 선발) 174명은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이다.

○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(수행실적 우수자),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,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**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농업·농촌 분야 유입 확대**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하였다.